

소가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



김혜정
충남 아산 은총목장

“우와! 멋지다. 정말 장관이네!”

연신 감탄사를 내면서 우리는 달리는 전용차량 유리에 이마를 맞대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집 떠나온 지 16시간이 흐른 후 펼쳐지는 이색 풍경에 우리 눈들이 호강을 하고 있었다. 여성낙농인 선진지 연수를 앞두고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해 김치, 국거리, 밑반찬 등을 분주하게 준비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식구와 젖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 생전에 유럽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이미 바다보다 낮은, 작지만 강한 나라인 네덜란드의 광활한 초지 위에 유유히 거닐며 야그작 야그작 풀 뜯는 소들이 비취지고 있었다. 여성상위국가라고 하니 왠지 내 마음에 더욱 좋은 이미지로 남을 듯했다.

생산자로서 느끼는 고충은 매한가지

제일 먼저 PTC+ 낙농업 전문 실습센터를 방문하였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현장에 가까운 교육으로 개인별 능력에 맞춰서 집중교육을 한다하니 일하면서 배우는 셈이다. 이론과 실기가 따로인 교육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다. 유기농 방식의 낙농 목장에서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목장경영이 좋아보였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목장을 경영하면서 느끼는 생산자로서의 어려움과 고충은 다 비슷한 것 같았다. 늘 부족한 듯한 원유대금과 그 외의 지출과 수익의 불균형을 좁히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표정으로 교감을 나누었다.

목장 통로 우상 바닥의 분뇨를 로봇 청소기가 밀어주는 것을 보니 선진지 다운 면

모가 보이기도 했다. 우리집에도 한 대 들여 볼까? 목장설비 자동화와는 별개로 한국인 입맛에는 익숙치 않은 4개월, 9개월된 송아지가 송아지고기의 활성화를 위해 사육되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가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듯 했다.

이어서 잔세스칸스의 각양각색 풍차와 나막신 공장의 공정을 보고, 맛있는 치즈와 과자 등을 맛보며 스위스로 향했다.



▲ 에멘탈 유제품 상점

네덜란드와는 또다른 구릉지대의 넓고 넓은 초원이 끝도 없이 눈앞에 펼쳐지며 곱게 물든 단풍과 멋진 양상블을 이루고 있었다. 한 폭의 그림을 마주하듯 정말 아름답다움 그 이상이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에멘탈 치즈생산 공장을 둘러보니 굉장했다. 1740년부터 장작 불로 시작된 치즈 제조과정을 보여주는 것부터 현대설비시설에서 제조된 치즈 공방과 기념품점까지 연간 280만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 받은 듯 했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푸라우 등정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핫팩 등을 준비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았다. 1년에 열손가락안에 들 정도로 맑은 날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여성 낙농인들이 복이 많아, 맑고 쾌청한 날씨가 반겨주는 것 같다는 칭찬까지 받아가며 설경의 겨울을 한발 앞서 맞이하였다.

노동력 절감과 시간절약, 여유로운 목장생활로 이어져

마지막 방문국가는 분단의 아픔을 지니며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우리였기에 남다른 감정이 있는 나라 독일이었다. 동·서독간의 통합으로 더욱 탄탄한 유럽경제의 중심국가로 발돋움 한 것을 보니 부럽기까지 하였다. 독특한 건축물에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여러 작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한 거장의 나라다운 모습이었다.



독일에서는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통해 일반우유에 비해 2배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바 이덴호프 목장을 방문했다. 밭을 깊게 갈아주면서 골마다 분뇨를 흘려 넣어주는 독특한 모양의 기계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악취가 심하지 않아 민원 발생소지가 적고 분뇨의 부숙이 충분히 일어나서 초지조성에 밑거름으로 활용되니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보는 듯 했다. 특히 노동력 절감과 시간 절약을 통해 더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3개국 모두 소들이 순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웃는 듯한 인상을 보니 ‘아! 소들이 행복해 하는구나’ 라고 느껴졌다.

시간에 쫓겨 늘 서두르고 재촉하며 우리 애들을(젓소) 다그쳤던 것이 새삼 후회가 됐다.

마지막 저녁식사 후 간담회를 통해 연수생들의 소감을 듣고, 낙농2세대들(며느리, 딸)의 갈등과 해소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소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드넓은 초원위에 우리집 고유번호를 부착한 육성우들이 뛰어놀며 풀을 뜯는 모습에 소스라쳐 놀라 깨니 인천공항 도착 한 시간 전,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하며 6박 8일 대장정의 시간을 정리해 본다.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해외연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주신 여성분과 이명규 위원장님, 권영웅 지도교수님, 축산경제신문 이해진 기자님, 협회와 우유자조금 관계자분들, 우리 여성낙농인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음메! 